

『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』 교육, 보안, 지역 전담반(TF) 구성·운영, 대한민국 인공지능 실행계획(AI액션플랜) 뒷받침

- 교육/보안/지역 등 3개 분야 전담반(테스크포스) 구성·운영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 실행계획(AI액션플랜) 등 인공지능 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에 속도감과 이행력 확보를 뒷받침

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(위원장 이재명 대통령, 이하 ‘위원회’)는 9월 23일(화) △ 교육 전담반(TF), △ 보안 전담반(TF), △ 지역 전담반(TF) 등 3개 분야 전담반(테스크포스, TF)을 구성했다고 밝혔다.

이는 위원회가 지난 9.16일부터 대한민국 인공지능 실천계획(AI액션플랜) 수립 등 위원회의 주요 인공지능 정책 수립과 심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8개 분과위원회*를 구성, 운영해오는 과정에서,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른 발 빠른 후속조치로 전담반(TF)은 기존 분과에 속한 위원 중 한 명이 책임자를 맡게 되며 새로운 전문가들과 기존 위원(분과위원 포함)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.

* ① 기술혁신 및 기반 시설(인프라), ② 산업 인공지능 전환(AX) 및 생태계, ③ 공공 인공지능 전환(AX), ④ 데이터, ⑤ 사회, ⑥국제 협력, ⑦과학 및 인재, ⑧국방 및 안보 등

우선 교육 전담반(TF)은 △ 초·중등 인공지능 교육, △ 전국민 인공지능 소양 교육 등에 보다 특화되어 현재 과학·인재분과와 별개로 구성되며 기존 과학·인재 분과분과위원인 김현철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가 책임자를 맡아 운영될 예정이다.

보안 전담반(TF)은 안보나 윤리와 별도로 △ 인공지능을 악용한 보안 문제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전담반(TF) 위원 구성 및 운영

방안 등에 있어 국가 안보실 3차장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으로 기존 사회분과 위원이자 전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인 이원태 국민대 특임교수가 책임자를 맡아 운영될 예정이다.

마지막으로 지역 전담반(지역 TF)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(위원장 김정수)와 함께 지역 기반 인공 지능 사업·정책*들에 대한 효율적 추진과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기존 기술·기반 시설(인프라) 분과 분과 위원인 송혜자 블루웍스(정보기술, 전력 솔루션 기업) 대표가 책임자를 맡아 운영될 예정이다.

* (예시) 국토부, 산업부, 중기부, 과기정통부 등이 각각 지역에 추진 중인 인공 지능 특화 시범도시, 인공 지능 혁신특구, 인공 지능 혁신센터 등 다양한 사업의 연계와 지역특화 산업 연계 인공 지능 발전 방안 등

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“인공 지능 대전환 시대 복합적·심층적 과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가진 모든 인공 지능 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해야 한다”면서, “유연한 전담 반(테스크포스) 체제 구성·운영을 통해 내실있는 대한민국 인공 지능 실행 계획(AI액션플랜) 수립 등 성과를 창출해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정책제도팀	책임자	팀 장	유경태 (02-2224-4140)
		담당자	사무관	김준협 (02-2224-4141)

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
내일을 채우는 디지털·AI

대한민국
정책브리핑



